

現代社會에서 看護員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한 전문직 간호원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現場에서의 생동감 있는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이란을 꾸며 학교사회, 산업장, 병원사회, 군사회로 이어져 나간다.

<편집자 주>

병 원 사 회 에 서

최 만 자

필자는 1967년 4월에 현재 근무 하고 있는 Parkland memorial Hospital과 고용계약을 맺고 홀로 이곳에 왔다.

수속당시는 이곳 수술실에 와서 얼마간 기술 습득을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으나 수속을 하고 보니 이민 자격으로 오게 되었다.

Dallas에 도착한 날은 시차로 인하여 그날 밤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본 병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고 이틀째 되는날 부터는 수술실에서 운번제에 따라 일반외과 Scrub부터 시작했다. 오리엔테이션이나 각 과과별 순회제도는 새로운 간호원을 위한 보수교육제도의 하나로서 현재도 실행되고 있는데 각과 마다 보통 3, 4주간을 시키고 있다.

처음 두 주일간 일반외과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Vascular, Thoracic, Neuro-surgery등의 순서로 근무를 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한 것은 Thoracic Surgery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종사하던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Thoracic Surgery에서 첫날 Open heart surgery는 당시 이 업무를 맡고 있던 Head Nurse와 Scrub을 했고 다음날 부터는 필자 혼자서 Scrub도 하고 또 Circulating Nurse로도 일하게 되었는데 어려운점도 있었지만 큰 실수

없이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재삼 재삼 국내에서 받은 엄한 훈련에 감사를 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Open heart surgery중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으레 그쪽 일도 보살펴야 함은 국내에서 받은 훈련의 덕분이라 신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곳에 와서 대한 업무중 대표적으로 생소했던 것은 신장이식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장이식수술은 1967년 당시 이 병원으로서도 초창기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필자가 이 Service에 Rotation을 갔을 때에 느낀점으로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으며 새로운 분야라고는 했지만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10개월 후에 다시 일을 계속했을 때에 이 분야는 이미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조직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었으며 수술결과도 무척 좋아졌다고 하였다. 한달쯤 지난후 병원측에서 필자에게 Kidney Transplantation을 주관하는 Urology Service를 맡으라고 하지 않는가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정중히 사양을 했으나 Vascular

Surgery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꼭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맡으라는 바람에 이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일을 맡고 보니 Cardiavascular Thoracic-surgery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점도 많이 있고 병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식 team은 General-surgeon 혹은 Vascular-surgeon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업무를 맡은 후 처음 몇달간은 각종 기구와 물자공급을 체계화하고 수술준비 및 이행에 대한 과정을 새로 익히고 배우는 Procedure Book에 미비한 것을 보충하는 등 가외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이든지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되면 곧 바로 잡고 서로 협력하며 배우면서 침착히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일에 종사함으로써 필자에게 돌아온 이 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즉 그때를 즈음하여 신장 이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며 각처에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연례행사도 많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매년 한번씩 전국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 이 분야에 더욱 전문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은 필자 주변의 일들에 불과 하지만 우리가 전문적 간호원으로서 배운 지식과 기술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나 자신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를 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하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알아볼겸 이곳 실정을 아는데로 몇 가

지 소개 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제도상의 문제로 근래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에서의 간호원의 기능과 Career Pattern 재정비문제는 여러면으로 애를 쓰고는 있지만 단번에 큰 변화를 준 것은 없다. 다만 Health care team으로 하여금 보다 진보된 Qualified Patient Care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의회에서 소위 P.S.R.O. (Physician Service Review Organization)라고 불리는 법안이 토의 되던사부터 각 의료기관은 Standards of Care에 대해서 배전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Standards는 Practice 별로 다소 상이한 점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Supplies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수술실 경우를 예로 들면 1975년 A.N.A.와 A.O.R.N.(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합동으로 발표한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Operating Room¹⁾ Standards of Technical and Aesptic Practice: Operating Room²⁾ 그리고 1976년에 채택된 Standards of Administrative Nursing Practice: Operating Room³⁾ 등은 간호원에 관련된 것 들이다.

애초에 이와 같은 Standards들은 간호과정에 기초를 둔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 되었지만 J.C.H.A.(Joint Commission Hospital Auccreditation)의 기준에 따라 세세하고 광범위하게 간호 활동범위를 다루고 있어서 간호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각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구에서는 이 Standards를 준수하도록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법적으로 이를 준수해야만 되도록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각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J.C.H.A.가

1.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American Nurses' Association Division on Medical-Surgical Nursing Practice, Standards of nursing Practice: opering room (KansasCity, mo;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75)
2. "AORN Standards; OR Wearing Apparel, Draping and gowning mataterials," AORN Journal 21(March 1975) 594-598; "AONG Standards for OR Sanitation," AONG Journal 21(June 1675) 1228-1231; "Standards for sponge, Needle and instrument Procedures, AORN Journal 23(May 1976) 971; "Standards for Preoperative Skin Preparation of Patients, "AORN Journal 23(May 1976) 974
3. "Standards of Administrative. Nursing Practice; Operating Room, AORN Journal 23(June 1976) 1202-1208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되었다. 따라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조사 감독을 강화했고 또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윤번제로 돌아가며 Nursing Audit까지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 자체에서는 감독만하고 고용된 의료인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보수교육시간을 매주 1회 일정한 논제에 따라 가지는 것, internship 제도의 채택 등은 취업중인 간호원들이나 신입 간호원의 보수교육을 위해서 병원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들이며 제한된 인원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워싱턴 세미나 등에 참석을 시켜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도 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일종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간호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기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원유를 하고 각 전문적인 회합등에 출석하는 것들은 소위 C.E.(Continuing education) unit라는 것으로 일일이 Credit을 인정하여 승진 봉급 인상시에 하는 평가에 까지도 반영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주에서 취업중인 간호원들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있다” 면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다.

현재 필자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상당한 수의 한국 간호원이 취업중에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은 현실에 임하는 자세도 대단히 진지하고 적극적으로어서 노년기에 대학원에 다니며 취업중인분들도 여러 분 있다.

「한국간호관계 논문요약집」 제2집 발간을 위해

본회가 “한국간호관계 논문요약집” 제 1집을 발간, 이미 발간된 “한국간호관계 문헌총목록”과 더불어 연구를 하고자하는 회원에게 보다 귀중한 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1집 발간이후 많은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듣고 있던바 계속사업으로 제 2집의 발간을 위해 자료수집에 임하고 있으니 1977년 10월이후 간호관계 또는 의료관계잡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의 요약문(원고지 5매)을 취합하고 있사오니 지속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해당기간 : 1977년 10월 이후 발표된 연구논문

수집기간 : 78. 11. 30(계속사업, 원고지 5매)

연 락 처 :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69)3618~9)

대한간호협회 출판부